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생산자 가격 인플레이 1% 이하로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
- Bloomberg: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추정하기에는 시기 상조”
- CNBC: 오늘 국채 수익률 약간 감소 상태... 연준 금리 발표 앞두고
- WSJ: 엘런 장관, “미 경제 소프트랜딩 가고 있다”

[미국 금융]

- Goldman Sachs: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언제 마무리 될 건가?

[뉴욕]

- CNN Business: 뉴욕주 10억불 투자해 IBM, Micron과 반도체 연구 센터 설립 예정

[부동산]

- CNBC: 모기지 금리 재융자 19% 급증... 7월 이래 가장 낮은 모기지 금리 영향

[에너지]

- WSJ: COP28 국가들,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에 합의하다
- WSJ: OPEC, “내년도 글로벌 원유 수요 올해와 비슷하다”

[전기차]

- WSJ: 전기차 세금 공제 청구 쉽지 않을 듯... 중국산 흑연 의존 탓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테슬라, 2백만 대 넘는 차량 리콜 계획... 자동 운행 시스템 안전 우려로
- WSJ: MS, 원자력 발전 통해 인공지능 전력망 강화에 관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Price Inflation Cools to Below 1% as Energy Slides

미 생산자 가격 인플레이 1% 이하로 하락... 에너지가격 하락 탓

- 에너지 비용이 하락되는 가운데 11월 미 생산자 가격 상승폭이 감소해 인플레이 압력이 약화되는 신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오늘 수요일 연방노동통계에서 밝혀졌다.
- 작년과 비교해서는 생산자물가지수가 0.9%,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2% 상승해 지난 2021년 1월 이래 가장 낮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Fed Isn't Ready to Speculate on Rate Cuts — Yet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추정하기에는 시기 상조”

- 연준의 오늘까지 연속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반박하는 상황이다.
- 연준은 오늘 수요일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오후 2시에 발표면서 현행 5.25%~5.5%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 파월 의장의 입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추정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것이다. 연준 관리들은 기다리면서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CNBC: Treasury yields dip as investors look to Fed rate decision, policy guidance**오늘 국채 수익률 약간 감소 상태... 연준 금리 발표 앞두고**

- 오늘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 여부와 통화정책 미축 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트레이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이 약간 하락했다.
- 10년물은 2 베이시트 포인트 떨어진 4.176%, 2년물은 3베이시스포인트 감소한 4.688%를 기록중이다.

CNBC기사

WSJ: Yellen Says U.S. Economy on Path to Soft Landing**옐런 장관, “미 경제 소프트랜딩 가고 있다”**

-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침체없이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이른바 소프트랜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그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의미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 인플레이 둔화”를 말한다고 긍정적 진행상황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골드만삭스 보고서: US Daily: When Will Balance Sheet Runoff End and How Will the Fed Know When to Stop?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언제 마무리 될 건가?

- 작년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1조2천억달러를 줄여 7조8천억달러로 줄었다.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축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FOMC는 2024년 3분기경에 양적완화 축소 속도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해 2024년 4분기에 속도를 늦추고 2025년 1분기에 양적완화 축소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GoldmanSachs 보고서

[뉴욕]

CNN Business: New York plans a \$10 billion chip research center with IBM, Micron and others

뉴욕주 10억불 투자해 IBM, Micron과 반도체 연구 센터 설립 예정

- 뉴욕주의 주지사 Kathy Hochul가 고나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High NA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반도체 연구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 지난 월요일 성명에서, 그녀는 이를 위해 뉴욕주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IBM, Micron 그리고 Applied Materials 같은 반도체 거대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명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소 7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90억 달러의 추정 가치를 창출하고,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초중고 STEM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재 개발 역할을 맡게 된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

CNBC: Mortgage refinance demand jumps 19% after rates hit lowest level since July

모기지 금리 재융자 19% 급증... 7월 이래 가장 낮은 모기지 금리 영향

-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다시 떨어졌다. 모기지 은행 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의 평균 계약 금리가 7.17%에서 7.07%로 감소했으며 이는 7월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금리 수요도 4% 상승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하면 18%나 낮다.
-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으며,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모기지 금리는 오늘 수요일에 있을 연준 이사회의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CNBC기사

[에너지]

WSJ: COP28 Nations Agree for First Time to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COP28 국가들,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에 합의하다**

- 오늘 수요일, 유엔 기후 컨퍼런스에서 190개가 넘는 국가가 앞으로 전 세계가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합의에 동의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맞서 세계 국가들이 석탄,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는 등 글로벌 경제에 전례 없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도달한 이번 합의는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과학자들은 각국의 정부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협약인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데, 이번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OPEC Leaves Global Oil-Demand Views Unchanged**OPEC, “내년도 글로벌 원유 수요 올해와 비슷하다”**

-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OPEC이 글로벌 오일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 OPEC는 월별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내년 오일 수요가 하루당 2백20만 배럴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3년의 오일 수요 추정치인 2백50만 배럴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 또한, 내년에 원유 수요 성장의 핵심 동력인 중국의 경제가 회복하고,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며, 올해 침체됐던 유럽 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아 내년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WSJ 기사

[전기차]

WSJ: Why Biden’s EV Tax Credit Could Become Hard to Claim**전기차 세금 공제 청구 쉽지 않을 듯... 중국산 흑연 의존 탓**

- 작년 '인플레이 감축법'은 자동차사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일 목적으로 법제화 되었다. 적성국가들에 대한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 미국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들은 내년 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부터 가져온 핵심 광물로 된 전기자동차의 7천5백불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흑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큰 상황이다.
- 또한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도 내년부터 같은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 그런데 실제로 이를 충족시켜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esla to Recall More Than Two Million Vehicles Over Autopilot Safety Concerns**테슬라, 2백만 대 넘는 차량 리콜 계획... 자동 운행 시스템 안전 우려로**

- 미 자동차 안전 당국이 운전자 보조 기술과 관련된 충돌 사고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자동 운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우려로 2백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다.
-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은 어제 화요일, 리콜 대상 차량은 201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모델3, S, X 그리고 Y 라고 말했다.
- 또한, 이 기관은 테슬라의 자동 운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실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NHTSA는 이 기술과 관련해 956건의 충돌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WSJ: Microsoft Targets Nuclear to Power AI Operations**MS, 원자력 발전 통해 인공지능 전력망 강화에 관심**

-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팅에 필요한 상당한 양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기술 업계의 전기 수요량은 엄청난데, 단일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수십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까다롭고 비싼 미국의 원자력 규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재밌는 것은, 관계자에 따르면 MS가 자사의 인공지능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등의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 MS의 직원들은 팀을 꾸려 대형 언어 모델(LLM)에 미국의 원자력 규제와 관련 서류들을 학습시켰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허가 절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 기업의 수석 이사인 Michelle Patron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탈화석연료가 진행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COP28을 포함해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금리 결정 앞두고 기대인플레이션 진정...유가 하락 등 반영

EIA, 내년 브렌트유 가격전망 93→83달러 하향..."올해 美 원유생산 사상 최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10년물 미 국채 명목 금리와 인플레이션 연동 미국 국채 (TIPS) 실질 금리간 격차로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이른바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율(BEI)' 움직임을 근거로 이같이 설명했다.

BEI는 국채금리 급등 당시인 지난 10월 19일 장중 2.5%를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지난 6월 당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